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및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안성미¹, 김경희^{2*}

¹강동대학교 간호학과, ²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seeking Stress on Nursing Students' Career Maturity

Sung Mi Ahn¹, Kyunghee Kim^{2*}

¹Department of Nursing, Gangdo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S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230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2017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다.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 way ANOVA, Pearson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는 성별($t=2.117, p=.035$), 연령($t=2.572, p=.011$), 학년별($F=4.716, p=.010$), 대학 입학 당시 학력($t=2.695, p=.008$), 성적($F=11.127, p<.001$)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성숙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r=.585, p<.001$), 문제해결능력($r=.407,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취업스트레스($r=-.424,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임을 확인하였고, 이들 변수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설명력은 42.8%이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증진을 위해 간호학 고유의 전문직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전공에 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직업적 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career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A convenience sample of 230 nursing student was selected from S city, between 20 October and 10 November 2017.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WIN 21.0 program. Factors that influenced career maturity included gender($t=2.117, p=.035$), age($t=2.572, p=.011$), grade($F=4.716, p=.010$), education at the time of admission($t=2.695, p=.008$) and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F=11.127, p<.001$). Career maturit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r=.585, p<.001$) and problem solving ability($r=.407, p<.001$), but a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seeking stress($r=-.424, p<.001$).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career maturity wer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seeking stress. This regression model explained 42.8% of the variance in the career maturity.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test programs to ensure an improvement i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seeking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to increase their career maturity.

Keywords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Job-seeking Stress, Nursing Students, Problem Solving Ability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Kim(Chung-Ang Univ.)

Tel: +82-2-820-5670 email: Kyung@cau.ac.kr

Received December 5, 2017

Revised (1st December 18, 2017, 2nd January 2, 2018)

Accepted January 5, 2018

Published January 31,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시기는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이때 이루어진 자신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결정이 삶의 방향과 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1]. 우리 사회는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의 주체성이 결여되고 적성이나 흥미와 무관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2]. 최근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대학생들도 본인의 가치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정적인 직업이나 취업률과 같은 외재적인 가치에 유인되어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3]. 진로나 전공, 직업선택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지만 충분한 탐색과 준비과정 없이 대학에 진학한 많은 대학생들은 결국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4]. 특히 대부분 입시위주의 교육체계에 익숙한 대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과정과 전혀 다른 학업, 사회생활 적응 외에도 졸업반이 되면 별도의 취업준비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5].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취업을 하고, 그 일에 적응하기 위해 기대되는 진로행동이나 태도를 발달시키는 것은 대학시절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간호대학생도 대학시절 어렵게 전공에 적응을 하여 졸업 후 취업을 하고서도 직업에 적응하지 못해 조기 퇴사,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간호학 전공 지원자의 수가 증가되는 양상을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확인하고 진로성숙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성숙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6]. 즉 간호대학생들이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아실현을 이루며 직업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7].

최근 대학생들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취업스트레스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가장 높은 것이 취업스트레스이다[8,9].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1.2%로 전체 실업률 4.2%보다 2배 이상 높고[10], 청년실업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 사회요인, 고용시장 침체의 분위기 속에서 취

업 경쟁률과 스트레스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11].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일반대학생 대상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취업이 용이하다고 알려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임상실습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등이 주를 이루고,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2,13]. 다른 전공에 비해 간호학의 경우 취업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최근 간호사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국내 많은 대학교에 현재 간호학과가 신설, 증원되었다. 이는 경쟁력을 갖추어 조금 더 나은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한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높이고 있어 이제 간호대학생에게도 취업스트레스는 예외일 수만은 없다[14,15]. 선행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부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며, 취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과 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16,17,18].

이 외에도 진도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 특정 영역의 행동을 수행할 때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회피의 행동을 보이지만,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행동에 있어서도 자기효능감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19,20]. 특히 진로결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며[21], 이는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관련성을 나타내었다[7,22,23].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개인 욕구를 잘 파악하여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24], 진로결정의 중요성 때문에 직업행동과 관련된 영역의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25].

문제해결능력이 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장애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과정이며[26],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 능력은 상호작용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27,28]. 그러나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문제해결능력이 취업스트레스를 대처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

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규명하고 이들 변인이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증진시키고, 진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상담과 지도 방안 마련을 위한 중재 교육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중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S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동의한 학생을 편의 추출하여 구조화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program(3.0.10)으로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127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40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여 최종 230명을 표본추출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의 과정에서 다양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Betz[21]에 의해 개발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CDMSES-SF)을 Lee[29]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4가지 하위요인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과 관련된 강한 자신감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Lee[2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3.2 문제해결능력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명료화하고 원인 분석, 대안 개발 및 실행을 위한 계획수립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al Institute[30]이 대학생/성인용으로 개발한 문제해결능력 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제 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발, 계획 및 실행, 수행평가의 총 5개 능력요인과 9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능력요소별 하위요인은 문제명료화-문제인식, 원인분석-정보수집과 분석능력, 대안개발-확산적 사고와 의사결정, 계획/실행-기획력 및 실행과 모험 감수, 수행평가-평가와 피드백으로 각각 5문항씩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2.3.3 취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는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대학생활에서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로 보았다. Shepherd 등 [31]의 코넬 대학 ‘스트레스 측정법’(Cornell Medical Index : CMI)을 토대로 Hwang[32]이 개발한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참고하여 Kang[33]

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격의 스트레스, 가족환경의 스트레스, 학업의 스트레스, 학교환경의 스트레스, 취업불안의 스트레스 5가지 하위요인의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Kang[33]의 연구에서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78~.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2.3.4 진로성숙도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는 발달단계에 있는 연속선상의 한 도달 수준으로 개인이 수행해야 할 직업적 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로 동일한 연령층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도로 보았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Crites [34]가 개발한 CMI(Career Maturity Inventory)의 태도척도가운데 상담용 척도(COUNSELINGFROM B-I)를 Lee와 Han[35]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제작한 진로성숙검사지를 토대로 Kang[33]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5가지 하위요인인 진로확정도, 진로독립도, 진로타협도, 직업선택태도, 진로관여도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산문항은 역산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Kim과 Kim[3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2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 대상자는 S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의 전공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간호학과 2학년 이상 학생들로 대상 지역 2개 간호학과의 연구 협조를 얻어 연구자가 해당 학교에 방문하였다. 설문지 배포 이전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자기기입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자의에 의한 참여로 이루어지며 참여 도중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철회가 가능하고 비밀 보장 및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 제공 후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10-15분 정도였다. 본 자료의 수집 기간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 승인(1041078-201708-HR-164-01)후 2017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배포된 24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230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21.0 version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량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 진로성숙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 4)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30명으로 남자가 43명(18.7%), 여자가 187명(81.3%)이고 연령대는 20대가 215명(93.5%), 30대가 15명(6.5%)이었다. 학년별로 2학년 83명(36.1%), 3학년 90명(39.1%), 4학년이 57명(24.8%)이었고 꾸준히 종교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23명(10.0%)으로 보통 45명(19.6%)과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162명(70.4%)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입학 당시 학력은 고졸이 182명(79.1%), 전문대학 재학 이상 학력의 대상자들은 48명(20.9%)이었고 성적은 '상' 39명(17.0%), '중' 147명(63.9%), '하' 44명(19.1%)라고 인식하였다. 주관적 경제 상태는 '상' 49명(21.3%), '중' 131명(57.0%), '하' 50명(21.7%)으로 인식하였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한 편'으로 인식하는 대상자들은 125명(54.3%), '보통' 88명(38.3%), '허약한 편'으로 인식하는 대상자들은 17명(7.4%)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 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 진로성숙도

본 연구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정도는 평균이 89.25±11.38점(도구범위: 25~125), 평균평점이 3.57±0.46점(척도범위: 1~5)이었다.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평

Table 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Job-seeking Stress and Career Maturity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0)

Variables	Categories	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Job-seeking Stress			Career Maturity		
			Mean±SD	t or F (Sheffe)	p	Mean±SD	t or F (Sheffe)	p	Mean±SD	t or F (Sheffe)	p	Mean±SD	t or F (Sheffe)	p
Gender	Male	43(18.7)	3.63±0.49	.958	.339	3.70±3.78	2.676	.008*	2.05±0.71	-2.881	.004*	3.52±0.39	2.117	.035*
	Female	187(81.3)	3.55±0.45			3.52±0.39			2.43±0.68			3.42±0.37		
Age(Years)	20s	215(93.5)	3.55±0.46	-2.330	.021*	3.54±0.39	-1.557	.228	2.38±0.71	.825	.410	3.43±0.38	-2.572	.011*
	30s	15(6.5)	3.83±0.29			3.70±0.43			2.22±0.50			3.69±0.17		
Grade	Grade 2 ^a	83(36.1)	3.49±0.43	3.439 (a<b)	.034*	3.57±0.38	1.947	.145	2.36±0.66	24.55 (a,b<c)	.000*	3.38±0.33	4.716 (a<b)	.010*
	Grade 3 ^b	90(39.1)	3.66±0.48			3.59±0.43			2.08±0.66			3.50±0.43		
	Grade 4 ^c	57(24.8)	3.54±0.42			3.47±0.36			2.83±0.55			3.39±0.35		
Religion	Steady activity ^a	23(10.0)	3.82±0.44	5.498 (a>b,c)	.005*	3.67±0.59	3.992 (a>c)	.019*	2.46±0.69	.353	.703	3.51±0.41	1.488	.228
	Average ^b	45(19.6)	3.64±0.48			3.65±0.34			2.41±0.64			3.51±0.37		
	Almost no activity ^c	162(70.4)	3.51±0.44			3.51±0.34			2.34±0.70			3.41±0.38		
Education at the time of admission	High school	182(79.1)	3.56±0.48	-1.799	.073	3.56±0.38	.191	.848	2.37±0.70	.131	.896	3.41±0.40	-2.695	.008*
	Over the college	48(20.9)	3.69±0.41			3.56±0.43			2.37±0.69			3.58±0.34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High ^a	39(17.0)	3.79±0.33	7.963 (a>b,c)	.000*	3.74±0.38	7.358 (a>b,c)	.001*	2.14±0.69	3.737 (a<c)	.025*	3.67±0.31	11.127 (a>b,c)	.000*
	Average ^b	147(63.9)	3.55±0.48			3.55±0.38			2.38±0.68			3.44±0.38		
	Low ^c	44(19.1)	3.41±0.40			3.42±0.39			2.55±0.73			3.28±0.33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49(21.3)	3.52±0.56	.384	.682	3.63±0.42	1.266	.284	2.23±0.64	1.484	.229	3.51±0.41	.898	.409
	Average	131(57.0)	3.57±0.44			3.55±0.38			2.41±0.68			3.44±0.40		
	Low	50(21.7)	3.57±0.46			3.50±0.40			2.46±0.79			3.41±0.34		
Perceived health state	High ^a	125(54.3)	3.60±0.48	.923	.399	3.67±0.44	3.559	.030	2.23±0.66	12.915 (a,b<c)	.000*	3.50±0.37	2.181	.115
	Average ^b	88(38.3)	3.52±0.44			3.47±0.34			2.46±0.68			3.38±0.37		
	Low ^c	17(7.4)	3.57±0.46			3.69±0.39			3.05±0.63			3.40±0.38		

균이 160.20±17.61점(도구범위: 45~225), 평균평점이 3.56±0.39점(척도범위: 1~5)이었다.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평균이 52.14 ±15.32점(척도범위: 22~110), 평균평점 2.37±0.70점(척도범위: 1~5)이었으며, 진로성숙도 정도의 평균은 103.50±11.36점(도구범위: 30~150), 평균평점은 3.45±0.38점(척도범위: 1~5)이었다[Table 2].

Table 2.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Job-seeking Stress and Career Maturity (N=230)

Variables (Items)	Total score		Mean point score	
	M±SD	Possible range	M±SD	Possible rang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25)	89.25±11.38	25 ~ 125	3.57±0.46	1 ~ 5
Problem Solving Ability (45)	160.20±17.61	45 ~ 225	3.56±0.39	1 ~ 5
Job-seeking Stress (22)	52.14±15.32	22 ~ 110	2.37±0.70	1 ~ 5
Career Maturity (30)	103.50±11.36	30 ~ 150	3.45±0.38	1 ~ 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 진로성숙도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 진로성숙도의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Table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연령이 30대가 20대인 대상자들보다 높았으며($t=-2.330, p=.021$), 학년별로 3학년이 2학년에 비해 높았다($F=3.439, p=.034$). 종교 활동을 꾸준히 하는 대상자들이 보통이나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들보다 높고($F=5.498, p=.005$), 성격도 '상'인 대상자들이 '중'과 '하'인 대상자들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았다($F=7.963, p<.001$). 문제해결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t=2.676, p=.008$), 종교 활동을 꾸준히 하는 대상자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들보다 높고($F=3.992, p=.019$), 성적이 '상'인 대상자들이 '중'과 '하'인 대상자들보다 높았다($F=7.358, p=.001$). 취업스트레스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았으며($t=-2.881,$

$p=.004$), 학년별로 2학년과 3학년에 비해 4학년이 높았다($F=24.55, p<.001$). 성적이 ‘하’인 대상자들이 ‘상’인 대상자들보다 취업스트레스는 더 높았으며($F=3.737, p=.025$), 자신의 건강상태를 ‘허약한 편’으로 인식한 대상자들의 취업스트레스도 ‘건강한 편’과 ‘보통’으로 인식한 대상자들보다 높았다($F=12.915, p<.001$). 진로성숙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t=2.117, p=.035$), 연령이 30대가 20대인 대상자들보다 높았고($t=-2.572, p=.011$), 학년별로 2학년보다 3학년이 높았다($F=4.716, p=.010$). 대학 입학 당시 학력이 고졸인 대상자들보다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의 진로성숙도가 더 높았으며($t=-2.695, p=.008$), 성적이 ‘상’인 대상자들이 ‘중’과 ‘하’인 대상자들보다 높았다($F=11.127, p<.001$).

3.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Table 3].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다른 변수간의 관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좋을수록($r=.585, p<.001$), 문제해결능력이 좋을수록($r=.407, p<.001$) 진로성숙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취업스트레스는 낮을수록($r=-.424, p<.001$) 진로성숙도 정도가 높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Job-seeking Stress and Career Maturity (N=230)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Job-seeking Stress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1			
Problem Solving Ability	.527** ($<.001$)	1		
Job-seeking Stress	-.270** ($<.001$)	-.099	1	
Career Maturity	.585** ($<.001$)	.407** ($<.001$)	-.424** ($<.001$)	1

3.5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잔차의 정규분포 여부, 선형성, 등분산성 검정을 위해 잔차의 산포도와 정규 확률 그래프를 확인한 결과, 잔차는 45도 직선에 근접하고, 잔차의 부분 산점도는 모두 0을 중심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공차(Tolerance)는 .675-.925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1.081-1.470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아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은 충족되었다. 진로성숙도를 예측하는 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 입력방법(enter method)으로 F 통계값은 58.14, 유의확률은 $<.001$ 로 유의하며 진로성숙도 총 변량의 42.8%를 설명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beta=.424, p<.001$), 문제해결능력($\beta=.154, p=.009$), 취업스트레스($\beta=-.294, p<.001$) 세 변수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areer Maturity (N=230)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9.597	.000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423	.061	.424	6.971	.000
Problem Solving Ability	.099	.038	.154	2.616	.009
Job-seeking Stress	-.218	.039	-.294	-5.666	.000
Adj.R ² =.428, F=58.14,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4년제 간호학과 2~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3.57±0.46 점(범위 1-5점)으로 치위생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im[37]의 연구(3.22점)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서울, 경기 지역의 4년제 대학교 4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Bang과 Yoo[38]의 연구(3.72점)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는 1학년이 포함된 치위생과 학생들과 1학년을 제외 한 본 연구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서울, 경기 지역의 4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연구와의 차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되어 관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라 20대보다 30대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나 학년별, 연령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발달적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7,24]. 향후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시 연령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종교 활동 여부에 따라 종교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간호대학생들은 꾸준히 종교 활동을 하는 간호대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종교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영적 안녕감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삶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결과라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39,40].

본 연구에서 2~4학년 간호대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은 3.56 ± 0.39 점(범위 1-5점)으로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41]의 연구(3.49점)보다 문제해결능력은 높은 수준이었으며, 근무경력 2년에서 10년 이하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Jang[42]의 연구(3.28점)보다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라 문제해결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 2년제, 3년제, 4년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성별의 차이를 보였다[43]. 이러한 차이는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41]의 연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Jang[42]의 연구보다 본 연구의 남학생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성별의 차이와 문제해결능력과의 관련성은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이 요구되어진다. 종교 활동 여부에 따라 꾸준히 종교 활동을 하는 간호대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동일하게 종교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간호대학생들과 큰 차이를 보여 성별과 종교 활동의 여부가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도 알 수 있었다. 특히 문제해결능력 척도의 하위 요인 중 ‘실행과 모험 감수’의 영역에서 종교 활동을 꾸준히 하는 간호대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의 거의 하지 않는 간호대학생들

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인간의 영적인 부분이 인생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후 문제해결능력과 관련하여 성별과 종교 활동에 관한 특성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2~4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2.37 ± 0.70 점(범위 1-5점)으로 1~4학년까지 무용전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ang[33]의 연구(2.77점)와 Kim과 Kim[36]의 연구(2.76점)보다 취업스트레스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학마다 간호학과 신설, 증원으로 매년 약 1만 5천명의 간호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과거와 달리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졸업이후 대부분 간호사로 직업이 정해진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무용전공대학생들보다는 낮았으며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타 전공 대학생들과의 취업스트레스 비교 시 재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 Kang[33]과 Choe 등[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Choe 등[13]의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와 외모와의 관련성을 보고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여러 요인으로 인해 취업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학년별 취업스트레스 척도의 하위 요인 중 ‘학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스트레스’는 Kim과 Kim [36]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국가고시와 취업을 앞 둔 간호대학생 4학년은 자연스럽게 취업준비, 선택, 결정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허약하게 인식한 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인식하는 대상자들보다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나 건강 인식 정도와 취업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전공이 다른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정교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와 학과에서도 학년별, 성별, 건강과 관련한 취업스트레스 감소와 극복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2~4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3.45 ± 0.38 점(범위 1-5점)으로 1~4학년까지 무용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33]의 연구(3.39점)와 Kim과 Kim[36]의 연구(3.13점)보다 진로성숙도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간호대학생들은 향후 간호사로 직업이 뚜렷하게 정해진 부분이 동일한 연령층 학생들과의 상대적 비교에서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Kim과 Kim[36]의 연구와 유사하게 2학년보다 3학년의 진로성숙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20대보다 30대에서 진로성숙도가 더 높게 나타나 30대 대상자 중 대학 입학 당시 학력이 전문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많아서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다른 전공에 비해 간호학의 경우 안정적인 직업이나 취업률이 높아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타 대학 졸업자가 간호대학으로 재입학 하는 ‘유턴 입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44]. 특히 진로성숙도 척도의 하위 요인 중 직업에 대한 마음의 준비 정도를 측정하는 ‘진로확정도’와 진로에서 욕구와 현실을 잘 타협할 수 있는 ‘진로타협도’ 수준이 신입생보다 ‘유턴 입학생’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미 타 대학, 타 과에서 충분히 진로에 대한 고민 후 결정을 통해 간호학과에 재입학이 이루어진지라 진로성숙도가 동일 학년이라도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턴 입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에 간호대학 졸업 후 취업현장에 막상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직하는 수가 많아지고 있어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학교의 노력이 요구되어진다[6,44]. 이 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되고 차별화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개인별 성격의 인식 정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성숙도의 결과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성격이 ‘상’인 대상자가 ‘하’인 대상자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성격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5,45]. 또한 취업스트레스도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성격이 ‘하’인 대상자가 ‘상’인 대상자보다 취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1,13]. 경쟁력을 갖추어 조금 더 나은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과 성격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중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격과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선행연구[7,24,27]와 유사하게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이 좋을수록 진로성숙도 정도가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반면 취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진로성숙도 정도가 높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1,33,36]의 결과도 동일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학과 입학 후 국가고시와 취업 및 진학으로 연결되는 진로 과정에서 다양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즉 문제 및 위기상황에서 건강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비교적 취업률이 높은 간호대학생이라도 원하는 병원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병원 취업이 결정된 후에도 국가고시 합격의 부담감 등의 긴장감과 불안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중재 교육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되어진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가 42.8%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요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에게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과 졸업 후 취업과 관련된 취업스트레스보다 진로 결정의 과정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개인의 자신감이 결국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추후 간호대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및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외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영향요인을 조사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간호대학생은 개인적으로 직업적 자아실현과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간호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성숙하게 수행하는데 본 연구결과가 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학과 2곳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어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성숙도는 성별, 연령, 학년별, 대학입학 당시 학력,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취업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이들 세 변수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설명력은 42.8%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증진을 위해 개인적으로 다양한 성별, 연령, 학년별, 학력, 성적 등 외재적인 요인 강화의 필요성뿐 아니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와 같은 내재적인 요인 조절 및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간호학 고유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전공에 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서 간호대학생의 직업적 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교육을 할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직업적 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를 향상시키는 중재 후 진로성숙도의 횡단적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간호학 전공 과정동안 학년별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의 변화에 대한 종적 연구 및 대상자의 폭을 넓힌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References

- [1] G. P. Ko, M. Y. Sim, "The Structural Relation of Self-efficacy, Job Stress,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7, no. 1, pp. 19-38, 2014.
- [2] Y. J. So, J. S. Park,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career maturity in university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anxiety",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6, no. 4, pp. 23-44, 2016.
- [3] M. J. Kim, K. J. Kang, "The Influence of Calling, Work Values and Adaptation Resources on the Nursing Students' College Adjustment", *The Korea Society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 28, no. 3, pp. 667-677, 2016.
DOI: <http://dx.doi.org/10.13000/JFMSE.2016.28.3.667>
- [4] H. S. Song, H. Y. Hong,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1, no. 3, pp. 1325-1350, 2010.
DOI: <https://doi.org/10.15703/kjc.11.3.201009.1325>
- [5] D. J. Kim, J. S.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244-254,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244>
- [6] J. Y. Yoo, J. Y. Park, C. H. Woo, "Career Attitude Maturity, Calling, and Work as Meaning Affecting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among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1, no. 5, pp. 480-488, 2015.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5.21.5.480>
- [7] J. W. Lee, E. S. Choi,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Social Support, Career Motiv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18, no. 1, pp. 33-54, 2015.
- [8] S. H. Cho, G. S. Jeon, "Influencing Factors of Job-seeking Stres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in West South Area",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3, no. 2, pp. 79-89, 2015.
DOI: <http://dx.doi.org/10.17547/kjsr.2015.23.2.79>
- [9] E. J. Kim, K. W. Choi, "The Effects of the Depression and Job-Seeking Stress on the Career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vol. 19, no. 2, pp. 231-239, 2012.
- [10] Statistic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in April 2017, <http://www.kostat.go.kr>. 2017.
- [11] I. K. Seo, Y. S. Lee,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depression and despair: control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12, no. 1, pp. 117-147, 2015.
- [12] E. Y. Cho, J. A. Kim, J. Y. Kim, H. J. Kim, E. S. Ra, H. Y. Lee,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2, no. 1, pp. 35-43, 2016.
DOI: <http://dx.doi.org/10.7236/JCCT.2016.2.1.35>
- [13] M. H. Choe, J. H. Kim, E. S. Nam, Y. M. Lee, J. H. Hwang, M. K. Lee, S. J. Yoon, H. j. Park,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4, no. 2, pp. 122-131, 2015.
DOI: <http://dx.doi.org/10.5807/kjohn.2015.24.2.122>
- [14] I. S. Lee, "A Study on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Depression, and Employment Str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3, no. 5, pp. 2487-2500, 2011.
- [15] M. C. Barboza, M. H. Soares, "Analysis of stress-causing factors in the final undergraduate year of the nursing course", *Acta Scientiarum - Health Sciences*, vol. 34, no. 2, pp. 177-183, 2012.
DOI: <https://doi.org/10.4025/actascihealthsci.v34i2.9209>

- [16] J. M. Lee, C. Y. Park,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career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3, no. 2, pp. 333-342, 2012.
- [17] H. J. Kim,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ttach to Parents, Career Maturity and Self-Esteem on Employment Str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Gyeongbuk, 2014.
- [18] S. J. Lee, J. L. Lee, "The Effect of Job Search Stress on Career Maturity among the Students of Security Services",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vol. 42, pp. 179-203, 2015.
- [19]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2, pp. 191-215, 1977.
DOI: <http://dx.doi.org/10.1037/0033-295X.84.2.191>
- [20] J. Y. Kim, K. H. Lee,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7, no. 3, pp. 1-25, 2014.
- [21] K. M. Taylor,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2, no. 1, pp. 63-81, 1983.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
- [22] D. A. Luzzo, "Valu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in predicting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s and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0, no. 2, pp. 194-199, 1993.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40.2.194>
- [23] A. J. Harlow, S. L. Bowman, "Examining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Community College and First-Generation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43, no. 6, pp. 512-525, 2016.
DOI: <https://doi.org/10.1177/0894845316633780>
- [24] J. H. Lee, J. M. Le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30, no. 4, pp. 77-87, 2012.
DOI: <http://dx.doi.org/10.7466/JKHMA.2012.30.4.077>
- [25] D. Chaney, M. S. Hammond, N. E. Betz, K. D. Multon, "The reliabil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SF with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15, no. 2, pp. 194-205, 2007.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06298020>
- [26] P. P. Heppner, C. J. Krauskopf, "An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o personal problem solv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15, no. 3, pp. 371-447, 1987.
DOI: <https://doi.org/10.1177/0011000087153001>
- [27] J. H. Jeong, J.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and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CBNU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4, no. 1, pp. 43-68, 2013.
- [28] T. Y. Yang, K. H. Han,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of Affecting Career Decision Making in the Science-Gifted Undergraduates",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vol. 20, no. 3, pp. 921-946, 2010.
- [29] E. K.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1.
- [30]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al Institute.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RR-2003-15-3, KEDI, Seoul, 2003.
- [31] M. Shepherd, B. Cooper, A. C. Brown, G. Kalton, *Psychiatric Illness in General Practi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 [32] S. W. Hwang,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Pusan, 1998.
- [33] Y. R. Kang, "The Influence of Jobs seeking Stress on Their Career Maturity Dance Majoring Student", 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2006.
- [34] J. O. Crites, *Manual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for adults*, Monterey, Calif. CBT/Mc Graw Hill, 1978b.
- [35] K. H. Lee, J. C. Han, "Instrument for Validation of the Career Attitude Assessment Scal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vol. 8, no. - , pp. 219-255, 1997.
- [36] S. A. Kim, S. E. Kim,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ment Stress and the Level of Career Maturity f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ancing",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10, no. 1, pp. 53-60, 2014.
- [37] G. P. Kim, "A study on Self-efficacy of Course Decision and Major Field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 1, no. 2, pp. 49-57, 2013.
- [38] J. W. Bang, S. K. Yoo,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University Graduation to First Vocational Choic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24, no. 2, pp. 279-303, 2016.
- [39] H. J. Choi, J. H. Yoo,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Smartphone Dependency on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vol. 27, no. 1, pp. 43-50, 2016.
DOI: <http://dx.doi.org/10.12799/jkachn.2016.27.1.43>
- [40] K. H. Suh, K. K. Chon, "Spiritual well-being, life stress, and coping",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9, no. 2, pp. 333-350, 2004.
- [41] Y. K. Kim, "The Effect of Creative Problem-Solving Program on Leadership, Creativity and Creativity Problem-Solving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009.
- [42] S. J. Lee, K. S. Jang, "The Effect of Action Learning on Nurses' Program Solving, Communication, Emotional Creativity and Innovation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8, no. 2, pp. 73-87, 2014.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4.8.2.073>
- [43] K. S. S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Skills and Ability of Abili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 14, no. 1, pp. 1-27, 2017.

- [44] I. S. Park, E. K. Shin, "The influence of career identity on their stress coping styl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nursing students",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vol. 10, no. 4, pp. 41-53, 2016.
DOI: <http://dx.doi.org/10.18014/hsmr.2016.10.4.41>
- [45] J. S. Jung, M. J. Jeong, I. Y. Yoo,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1, pp. 27-36,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27>

안 성 미(Sung Mi Ahn)

[정회원]



- 2014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관리학과 (보건학 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수료)
- 2015년 8월 ~ 2016년 2월 :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기본간호, 핵심기본간호, 지역사회간호

김 경 희(Kyunghee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1992년 3월 ~ 1997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 1997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암 환자 간호, 삶의 질